

# 남성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여성의 노래:

백우용의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  
(二十世紀青年女子唱歌)를 중심으로

조 윤 영

1. 서론
2. 근대, 남성이 여성을 만들다
3. 최초의 여성창가집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
4. 식민지 조선여성에게 보내는 노래
5. 결론: 누구를 위한 노래인가

## 개 요

이 논문은 식민지 조선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여성을 위한 창가집인 백우용(白禹鏞, 1883-1930)의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二十世紀靑年女子唱歌)에 대한 연구로 총 42곡 노래들의 가사와 음악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분석하여 근대 여성의 이상적인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전통적인 여성상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근대화 과정 당시 조선인들의 바람직한 여성상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과정을 연구한다.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는 여성의 교육과 사회참여를 주장하는 당시의 글들과 동일 선상의 시도로 볼 수 있기에, 남성 지식층의 노력 하에 출판된 『가정잡지』(1906)와 『독립신문』(1896-1899) 등으로 여성 계몽활동을 살펴본 후,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의 노래를 음악적으로 분석하고, 텍스트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면밀하게 조사한다. 세 가지 유형은 ‘가정에서의 현모양처’, ‘전통사회의 유교적 여성’, ‘근대에 걸 맞는 계몽된 여성’으로, 전통에 의거한 여성상과 신여성의 이미지가 함께 부각되어, 당시 사회의 여성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남성이 주도한 창가집이지만, 12명의 여성운동가들이 교열자로 참여하였다는 점, 또한 정규학교보다는 주·야학이나 강습소에서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측, 그리고 서양음악 양식으로 된 다수의 노래들이 수용자인 일반여성의 음악적 수준으로는 결코 부르기에 수월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필자는 이 창가집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나 실제로는 사용되기 어려운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생각을 해 본다.

남성들의 다양한 여성 계몽운동은 그들 자신이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민지 상황에서 서구 강국의 여성들의 변화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음을 인지하고 자국의 부국강병을 위해 여성의 변화를 촉구하는 일종의 모방 시도이다. 그러나 이 창가집이 반영하듯, 당시 남성 지식층의 시도가 식민지 조선여성들의 삶에 실제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주제어: 식민지 조선, 백우용, 여자창가, 여성운동가, 근대 여성

## 1. 서론

이 논문은 식민지 조선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여성을 위한 창가집인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二十世紀青年女子唱歌, 1921)에 대한 연구로 총 42곡 노래들의 가사와 음악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분석하여 근대 여성의 이상적인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전통적인 여성상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근대화 과정 당시 조선인들의 바람직한 여성상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과정을 연구한다. 이 창가집은 표면적으로도 몇 가지 면에서 흥미롭다. 제목이 암시하듯, 여성을 위한 노래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작곡가인 백우룡(白禹鏞, 1883-1930)이 전곡을 작곡했다. 그러나 교열자는 당시 여성을 위한 활발한 교육과 계몽운동을 추진했던 12명의 여성 지도자들이다. 여성교육이 목적이지만 정규 학교가 아닌 주·야학이나 강습소에서 쓰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며, 시기적으로 여성의 교육과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진 1919년 삼일운동 직후인 1920년대 초반에 발행된 것으로 사회적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한다.

기존의 남성우위 전통사회에서 서양식 교육을 받은 남성이 여성의 교육을 위해 창가집을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왜 남성 작곡가가 여성의 교육과 계몽을 위한 노래 책을 만든 것일까? 이 창가집의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면, 유교의 가르침과 삼강오륜을 강조하는 곡들도 포함하고 있어 소위 ‘신여성’만을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닌, 조선의 모든 여성이 알아야하고 습득해야 하는 새로운 ‘가르침’을 노래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전통을 따르면서도 억압된 관습에서 벗어나 시대에 걸 맞는 변화를 추구하여 새로운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계몽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

창가에 관한 연구는 예전부터 소수에 의해 창가의 음악적 연구로 한정되었으나 최근 들어 선교사의 역할과 교육, 여성을 위한 근대 교육과 의식의 변화, 어린이의 음악교육에 대한 연구들로 연구의 범위가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서의 고찰로 넓어져 창가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 그리고 근대 삶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있다.<sup>1)</sup> 이런 상황에서 최초의 여성 창가집인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는 ‘근대 음악과 여성’이 만나는 그 시점을 드러내고, 서양어법의 노래라는 매개체가 근대 여성의 가치관 확립에 준 역할을 파악하며, 사회적으로 당시 여성의 교육 환경과 사회적 위치까지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한다. 당시의 남성 지식인들 사이에 행해졌던 ‘여자 만들기’를 통해 고정화된 여성성의 발단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음악이라는 장르가 사회문화적 상황 안에서 여성을 위해 어떻게 도구화되어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근대 남성 지식층을 통해 이루어진 여성 계몽활동을 살펴본 후 여성창가집의 구성과 내용에 대하여 음악과 가사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보며 어떤 여성상을 노래했는지 밝혀볼 것이다. 이로써 창가를 통하여 남성 지식인들이 원하는 여성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창가집이 갖는 의의를 수용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여성창가가 실제 여성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1) 김사랑은 “‘문명’의 노래, 조선인을 ‘위한’ 음악교육: 1910년대 선교사가 만든 『창가집』 분석”(2013)에서 미국인 선교사 안에리(Baird, Annie)와 베커(Becker)가 발간한 창가집을 통해 선교사들의 역할과 토착적 음악 교육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채현경은 “누구의 목소리인가: 서구식 음악교육과 여성 의식의 변화”(2013)에서 서구식 음악교육이 여성 의식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기존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여성 의식의 변화가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허지연은 “‘이화’가 만든 ‘고급’ 창가집 - 『유희창가집』을 통해 본 식민지 경성의 단면”(2011)에서 1930년 이화유치원에서 선교사 브라운리(Brownlee)가 출판한 창가집을 통해 식민지시대의 교육 상황을 조망하였다.

## 2. 근대, 남성이 여성을 만든다

전통적인 가정에서 유교적 교육을 받고 자란 여성들은 근대에 이르러도 유교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층 남성들이 여성들을 사회로 끌어내려 노력하였는데, 그들이 여성을 표면에 드러내기 시작한 이유는 부국강병을 통한 국권회복을 위해서다. 나라가 세계 각국의 힘에 흔들리는 정국이 되자 서구식 부국강병을 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근대 교육을 받은 국민(남성)의 필요가 절실했고 그 이면에는 국민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어머니(여성)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이다.<sup>2)</sup> 그러므로 근대계몽기의 새로운 여성상은 ‘여성이 만든’ 여성의 모습이 아닌 남성에 의해서, ‘남성을 위한’ 여성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지식층 남성들은 여성을 계몽/교육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특히 여성을 위한 글이나 잡지, 교과서 등에서 그들의 요구는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신문은 여성보다 남성이 접하기 쉬운 매체였기 때문에 여성의 계몽/교육을 위한 글을 실었다할지라도 남성 독자들이 읽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남성에게 자신의 여성(어머니, 아내, 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이는 1890년대 중반부터 『독립신문』(1896-1899), 『제국신문』(1898-1910), 『황성신문』(1898-1910), 『대한매일신보』(1904-1910) 등에서 여성에 대한 담론을 통해 이루어졌다. 아래의 예를 보다시피 개화기 초기에는 여성을 천하게 여기는 전통의 관습을 각성하고 남녀평등에 입각한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논설이 주를 이루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근대 국가를 위한 새로운 여성상에 대한 갈망과 추구의 글이 많아진다.

2) 김미지, 『누가 하이카라 여성을 데리고 사누』 (살림, 2005), 11.

제일 급하게 할 일이 사내아이들도 가르치거니와 계집아이들을 교육할 생각을 하여야 할 터인데 조선서는 계집아이들을 당최 사람으로 치지를 아니하여 교육들을 안 시키니 전국 인구 중에 반은 그만 내버렸는지라 어찌 아깝지 않으리오.<sup>3)</sup>

여자를 교육함은 즉 남자를 교육하는 모범이니... 여자는 남자의 어머니라. 그 어머니의 행실이 부정(不正)하면 그 아들의 애연(藹然)한 마음이 반드시 그 어머니를 따라 멸망할지니 그 아들이 비록 덕의를 학수(學修)하여 인인군자(仁人君子)를 만들고자 하나 가히 득성(得成)하리오.<sup>4)</sup>

여성을 위한 잡지로는 1906년 유성준, 유일선, 주시경 등이 만든 『가녕잡지』와 1908년 윤치오(尹致昨, 1869-1949)가 만든 『녀즈지남』(女子指南) 등이 있다. 전자는 가정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후자는 성인여성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발간되었다. 특히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월간지 『가녕잡지』는 상동교회 청년회에서 만든 한글 잡지로 십여 명의 집필진이 모두 기독교 지식인 남성이며 가정 계몽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지식을 쌓아 개혁을 도모하고 있다.<sup>5)</sup> 하희정은 잡지의 내용을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여성의 자의식 계발, 여성과 남성의 관계, 가정에서 여성의 위치, 여성의 사회활동’으로 보고 있으며 이 잡지를 통해 여성을 가정의 틀에서만 보지 않고 민족의 주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사회적 존재로까지 확대하여 인식시키고자 하였음을 확인하였다.<sup>6)</sup>

잡지의 발매와 비슷한 시기에 남성이 만든 여성을 위한 교과서가 등

3) 『독립신문』, 1895.09.05.

4) 『황성신문』, 1908.02.06.

5) 하희정, “<가녕잡지>에 나타난 한말 기독교인들의 여성이해,” 『한국여성신학』 22 (1995), 64.

6) 하희정, “<가녕잡지>에 나타난 한말 기독교인들의 여성이해,” 65-73.

장한다.7) 그 중 『가녕잡지』 발간에도 일조한 장지연(張志淵, 1864-1921)<sup>8)</sup>의 『녀즈독본』(女子讀本)을 살펴보면 1908년 광학서포(廣學書舖)<sup>9)</sup>에서 발행된 여성용 국어 교과서로 상권 64과, 하권 56과, 총 120과로 구성되어 동서양 여성 위인들의 이야기를 엮은 형식이다. 이 책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 혹은 몇 과로 나누어 일대기나 일화를 설명하는데 한글을 사용하여 여성들이 읽기 쉽게 만든 것으로 보이며 한자식 단어 옆에는 한자를 작게 명시하고 각 과마다 한자의 음과 훈까지 모두 적어 한자 공부도 병행하도록 돕고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아래의 총론 전문에서 보다시피, 앞으로 어머니가 될 여성을 교육시켜 국가에 일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여성 계몽/교육을 위한 것이다.

여자는 나라 백성 된 자의 어머니 될 사람이라 여자의 교육이 발달된 후에 그 자녀로 하여금 착한 사람을 이룰지라. 그런 고로 여자를 가르침이 곧 가정교육을 발달하여 국민의 지식을 인도하는 모범이 되느니라.<sup>10)</sup>

상권에서는 모도(母道), 부덕(婦德), 정렬(貞烈), 잡편으로 나누어 한국의 여성을 소개하고, 하권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여성을 소개한다. 한국

7) 이원공의 『초등여학독본』(1908), 강화석의 『부유독습』(1908), 노병희의 『여자소학수신서』(1909) 등이 있다. 문혜윤, “근대계몽기 여성 교과서의 열녀전, 그리고 애국부인들,” 『반교어문학회』 35 (2013), 101.

8) 언론인이자 애국계몽운동가. 황성신문사 사장을 맡으며 1905년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실어 일제의 국권침탈을 폭로하고 침략을 규탄하며 국민에게 총궐기를 호소하였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증보대한강역고』, 『유교연원』, 『위암문고』, 『대한최근사』, 『대한신지』 등이 있으며 『녀즈독본』을 발표하기 1년 전인 1907년 잔다르크의 이야기를 담은 『애국부인전』을 광학서포에서 발행하였다.

9) 1906년 윤치호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출판사로 『혈의 누』, 『이태리건국삼걸전』, 『을지문덕전』, 『초등윤리교과서』, 『언문』 등이 발행되었다.

10) 장지연, 『녀즈독본』 (광학서포, 1908), 1-2.

여성으로는 김유신의 아내, 이이의 모친, 논개 등 아내나 어머니 혹은 기생처럼 개인의 삶보다는 ‘남성을 위해’ 살았던 여성에 대한 삶의 기록이 대부분이고 중국이나 서양 여성으로는 맹모, 적량공 이모, 부란지사<sup>11)</sup>, 남정격이<sup>12)</sup> 등 한국여성보다 좀 더 진취적인 여성 개인으로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남성과의 관계 역시 딸, 아내, 이모, 여동생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책을 출간한 광학서포는 1906년 4월 문명개화와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윤치호(尹致昊, 1865-1945), 이상설, 남정철, 조경구, 김학진, 김진수, 임병향이 설립한 출판사다. 이들은 국민들의 계몽과 애국 그리고 일제에 대응한 독립사상과 관련된 교과서를 많이 출간하였으며 이들에게 여성의 계몽도 하나의 중요한 논점이었을 것이다. 지식층 남성으로 이루어진 출판사에서 여성계몽에 관련된 책을 만들었다는 것은 남성에게 근대 국가의 일원인 여성의 교육과 계몽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핵심이었음을 확인하게 해 준다.

그러나 이효재는 막상 현실에서의 여성들은 “막연하게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다고 인식했을 뿐, 그러한 인식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전반적 지위와 권리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확대되지는 못했다”<sup>13)</sup>고 지적한다.

이처럼 남성들은 유교적 전통사회에 갇혀있던 여성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성 계몽/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정작 여성들의 생각은 배제한 채, 남성이 만든 여성(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시켰다.

- 
- 11) 프랑세스 윌라드(Frances Willard, 1839-1898). 미국인이며 부인교풍회와 학교를 만든 여성운동가이다.
- 12) 플로렌스 나이팅게일(Florence Nightingale, 1820-1910). 영국인 간호사로 크림전쟁에서 야전병원장으로 활약했으며 군 의료 개혁에 일조하였다.
- 13) 이효재, 『한국의 여성운동 - 어제와 오늘』 (정우사, 1989). 한상권, 『차미리사 평전』 (푸른역사, 2008), 108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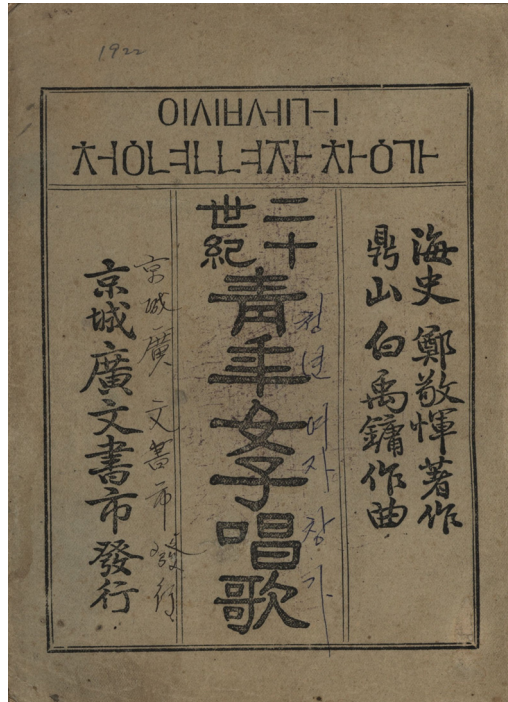
### 3. 최초의 여성창가집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

#### 1) 창가집의 구성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는 백우용(白禹鏞, 1883-1930)<sup>14)</sup>이 작곡하고 정경운(鄭敬暉)<sup>15)</sup>이 저작(著作)하여 1921년<sup>16)</sup> 경성 광문서시(廣問書市)<sup>17)</sup>에서 발행되었다.<sup>18)</sup> 이 책은 8장으로 구성되어 총 42곡의 창가가 실렸으며 전통사회에 부합하는 여성상과 근대국가에 어울리는 여성상에 대한 내용으로 신구(新舊, 근대와 전통) 이상형을 함께 제시한다.

- 
- 14) 백우용은 우리나라 최초의 군악대장이자 음악교육가, 작곡가, 아악채보가로 활동하였다. 한성관립덕어학교 졸업 후, 군악대 지휘자 에케르트(Franz von Eckert, 1852-1916)의 통역관으로 취직하여 그에게서 음악이론과 작곡법, 채보법, 악기연주법 등을 배웠다. 에케르트의 뒤를 이어 군악대의 지휘를 맡았으며 군악대가 해체된 후 이왕직양악대와 경성악대의 지휘자를 역임하였다. 보성학교, 휘문학교, 연희전문학교, 불교전수학교, 이왕직아악부원양성소 등에서 음악교육을 했으며 이왕직아악부 촉탁으로 아악채보를 하였다. 작곡집으로 『조선지리경개창가』(1921?)와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1921)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찬불가 <봄마지>(1924), <조선유람별곡>(1928), <노라>(1922) 등을 작곡하였다.
- 15) 해사(海史) 정경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광문서시에서 발행된 『낙원창가』(1921), 『조선지리경개창가』(1921?), 『동서위인창가』(1921), 『(화월산대)농금창가』(1922) 등 여러 창가집의 저작을 하였다.
- 16) 창가집에 발행일자에 대한 기록이 없어 추정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 책에는 2개의 머리말(序)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날짜가 적혀있지 않고 다른 하나는 1921년인 신유년으로 적혀있다. 또 창가집의 교열자방명에 조선여자교육회 회장 김미리사가 나오는데 조선여자교육회는 1922년 조선여자교육협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 17) 경성부 종로 2정목 82번지에 있던 인쇄소 겸 서적발행소로 정경운이 이곳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 18) 이 창가집은 현재 나운영기념사업회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사진자료는 이화음악연구소(Ewha Music Research Institut)가 <한국연구재단 토대사업(2011-2014)>을 수행하면서 구축한 이화음악데이터베이스(EMDB, Ewha Music Database)로부터 참조하였다. (홈페이지: <http://emusicdb.info>)

〔그림 1〕『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 표지



창가집의 실물 구성을 보면 창가집 첫 장에 겹면과 같은 제목이 한번 더 나오고 교열을 봐준 인물 소개인 교열자방명(校閱者芳名)이 나온다. 그 뒤로 신유년(辛酉年) 3월 3일에 쓰인 ‘죽일(竹一) 당식(堂識)’과 ‘산운(汕耘) 장도斌(張道斌)’의 서(序)가 나오고 4쪽에 걸쳐 목차를 실었다. 본문은 1쪽부터 95쪽까지이며 가사를 먼저 실고 그 다음 장에 오선보와 숫자보를 함께 쓴 악보를 실었다(다음 장 참조). 마지막 장은 광문서사에서 발행된 또다른 창가집인 『동서위인창가』와 『조선지리경개창가』의 소개로 광고를 넣고 끝맺는다.

서(序)에는 조선에도 남녀평등의 시대가 도래하여 여자들이 사회로 나오는 시기가 왔으니 열녀걸부(烈女傑婦)와 현모양처 같은 본받을 만한

부인들의 전기를 토대로 창가집을 만들었으며 창가가 인생 사회에서 큰 영향을 주니 등한시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sup>19)</sup>

〔표 1〕 백우옹의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 수록곡과 구성

장(章)	가사제목	악보제목	박자	조(調) <sup>20)</sup>	마디	절수	음계 <sup>21)</sup>	음역 <sup>22)</sup>
1.서광	새 거울	새 거울	4/4	B b	8	4	장음계	8
	새벽의 들	새벽의 들	2/4	D	16	2	5음음계	8
2.비애	인생의 생활	人生的 生活	4/4	E b	16	4	장음계	8
	생의 애	生の 哀	6/8	G	20	3	5음음계	11
	신부의 서름	新婦의 서름	4/4	F	16	10	단음계	11
	나의 서름	나의 서름	4/4	G	8	5	5음음계	9
	수영의 황혼	水影의 黃昏	6/8	F	16	2	장음계	10
3.경계	신구의 충돌 비극의 혼인	新舊 衝突 悲劇의 婚姻	4/4	C	8	5	5음음계	10
	정조	貞操	4/4	B b	8	7	장음계	8
	렬절	烈節	6/8	G	16	5	장음계	8
	부부의 진애	夫婦의 塵埃	2/4	G	16	9	장음계	9

19) 산운(汕耘) 장도빈(張道斌)의 서(序)

“우리 조선(朝鮮)도 이제는 남녀평등(男女平等)의 서광(曙光)에 깨웠도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남자(男子)들도 여자(女子)들을 향(向)하여 만강(滿腔)의 하의(賀儀)를 정(呈)하도다. 참 우리 인류(人類)의 큰 복음(福音)이로다. 그런데 근일(近日) 여자계(女子界)의 독물(讀物)로 출세(出世)하는 바가 대개 요요(寥寥)하므로 여배(汝輩)는 심(甚)히 의구(疑懼)하였고 고래(古來)의 열녀(烈女)걸부(傑婦)와 현모양처(賢母良妻)의 사적(事蹟)을 거(擧)하여 우리 자매(姊妹)에게 시(示)하는 자(者)- 심희(甚稀)하므로 여배(余輩)는 매우 유감(遺憾)으로 인(認)하였더니 이제 『이십세기 청년여자 창가』라는 서(書)가 성(成)하였으며 그 내용(內容)은 대개 여자(女子)의 모범(模範)이 될 만한 부인(婦人)들의 전기(傳記)를 축도(縮圖)로 한 것이라 하도다. 세(世)에 창가(唱歌)를 혹 등한(等閒)이 사(思)하는 자(者) 있지만 창가(唱歌)는 매우 인생(人生)사회(社會)에 대(大) 영향(影響)을 주는 것이라 여배(余輩)는 이 창가(唱歌)의 일서(一書)가 과연 오인(吾人) 향상(向上)의 일조(一助)가 되기를 원(願)하노라.”

장(章)	가사제목	악보제목	박자	조(調) <sup>20)</sup>	마디	절수	음계 <sup>21)</sup>	음역 <sup>22)</sup>
	우리의 직분	우리의 職分	6/8	G	16	4	장음계	7
	권고가	勸告歌	2/4	D	12	8	5음음계	11
	권학가	勸學歌	6/8	D	16	4	장음계	9
	공부의 바다	工夫의 바다	6/8	F	16	5	장음계	10
	급급개량	急急改良	4/4	C	8	4	장음계	8
4. 권고	구습을 바려라	구습을 바려라	6/8	B♭	16	6	장음계	8
	인내성	忍耐性	4/4	B♭	8	8	5음음계	8
	고향형제에게	고향형제에게 비름	4/4	C	10	4	5음음계	10
	주부의 책님 <sup>23)</sup>	主婦	6/8	F	16	6	장음계	10
	상가승무 노인곡	喪家僧舞 老人哭	6/8	C	16	8	장음계	10
5. 희망	신년가	新年歌	2/4	B♭	16	4	장음계	9
	소생	蘇生	2/4	C	16	4	장음계	8
	락화가	落花歌	6/8	F	16	4	장음계	11
	타향고객	他鄉孤客	3/4	B♭	17	5	장음계	9
	나의 소원	나의 所願	6/8	D	8	4	장음계	9
6. 전진	봄이 음	봄이 음	2/4	B♭	16	4	장음계	8
	나서라	나스라	4/4	G	16	4	장음계	8
	신여자에게	新女子에게	4/4	B♭	15	6	장음계	9
	의무	義務	4/4	G	17	2	장음계	9
	자립	自立	2/4	C	16	4	장음계	9
	소년소녀	少年少女	6/8	B♭	48	8	장음계	9
7. 의절	락화암가	落花岩歌	4/4	G	16	4	장음계	9
	촉석루경개	矗石樓景概	2/4	F	16	4	화성단음계	6
	런광덩경개	鍊光亭景概	4/4	C	8	4	장음계	9

장(章)	가사제목	악보제목	박자	조(調) <sup>20)</sup>	마디	절수	음계 <sup>21)</sup>	음역 <sup>22)</sup>
	릉모가	陵侮歌	6/8	F	8	7	5음음계	6
	서모가	徐母歌	2/4	G	9	6	장음계	8
	라란부인가	羅蘭婦人歌	2/4	D	16	6	장음계	8
	짚따크(1)	짚따크	2/4	F	16	3	장음계	10
	짚따크(2)	짚따크	2/4	D	48	8	장음계	9
8.성공	졸업식가	卒業式歌	3/4	F	8	6	가락단음계	8
	답사가	答辭歌	2/4	E <sup>b</sup>	10	5	장음계	8

창가집의 구성을 보면, 이 창가들은 전형적인 초창기 창가의 형태로 반주 없는 단선율 형식이다. 노래의 제목을 가사와 악보의 제목으로 분류한 이유는 한글과 한자의 차이이나 조금씩 다르게 표시된 곡들이 몇 곡 보이고 있어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구분하였다. 박자는 주로 2/4, 4/4, 6/8 박자를 사용하여 홑박자와 겹박자를 골고루 쓰고 있으며 다양한 조(調)를 사용한다. 노래의 빠르기는 적혀있지 않아 알 수 없으며 마디수로는 16마디로 이루어진 곡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8마디의 곡이다. 노래는 모두 유절형식으로 가사의 절수는 4절인 곡이 반 이상이며 그 외에도 2절부터 10절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음계는 7음음계가 가장 많다. 이는 당시의 일반인들이 5음음계에 익숙했다는 기록들에 반해,<sup>24)</sup> 백우용이 군악대에서 서양음악을 배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 백우용의 악보에 적혀있는 그대로 적었다. (장단조는 표시하지 않고 조(調)만 적고 있음)

21) 장음계 (도-레-미-파-솔-라-시), 5음음계 (도-레-미-솔-라), 단음계 (라-시-도-레-미-파-솔), 화성단음계 (단음계에서 7음을 받음 올림), 가락단음계 (단음계에서 6음과 7음을 받음 올림).

22) 곡의 가장 낮은 음과 가장 높은 음 사이의 간격을 말한다. (조표와 임시표는 생략)

23) 목차에 한자로 ‘責任’이라 쓰여 있어 ‘책임’의 오타로 보인다.

24) 그로브 목사의 글 “Adequate Song-Books”를 비롯한 당시의 자료들에서 확인된다.

음역은 40곡이 한 옥타브(8도) 혹은 한 옥타브를 넘어선 곡이며, 한 옥타브 안의 곡은 단 2곡이다. 특히 창가집 전반에 걸쳐 개작한 노래가 여러 곡 발견되는데 이는 당시의 작곡이란 개념이 현재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창작창가집이 유행한 20세기 초에는 개작한 곡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으로 보아 직접 작곡한 곡 이외에도 개작, 편곡, 수정하여 변형된 곡들까지 작곡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며 당시의 관습으로 모두 백우용 작곡으로 간주했다. 개작한 노래로는 외국곡 <스와니 강>, <즐거운 나의 집>, <밀밭에서>, F. 슈베르트의 <군대행진곡>,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등이 있으며 이 곡들처럼 전체를 개작한 노래가 아니더라도 리듬이나 선율이 당시 유행한 (일본) 창가와 비슷한 곡들도 있어 다른 창가집과의 비교분석도 추후 연구로 필요하다.

지금까지 확인해 본 창가집의 노래 양식은 매우 단순하다. 작곡 형태를 보면 서양음악 수용의 초창기 형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당시의 음악 수준을 알 수 있다. 다만 당시에 즐겨 사용하던 다장조, 사장조, 바장조 외에 다양한 조성을 사용한 점과 최고 48마디의 긴 노래를 만들었다는 점 등은 백우용 창가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음악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일반여성들이 서양음악에 기초한 이 창가집의 노래를 이해하고 부를 수 있었을까? 이화학당 음악교사였던 하몬(Grace Harmon McGary, 1889-1985)<sup>25)</sup>은 여학생들이 서양음악에 생소하여 가르치는 것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sup>26)</sup> 한양낙영회<sup>27)</sup>에서 백우용과 함께 활동한 그로브(Paul L.

25)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수학하였고 1910년에 미감리회 선교사로 내한하였다. 1911년 이화학당 교수로 부임하여 성악, 피아노, 오르간연주법 등을 지도했다.

26) Harmon, "Music in the School," *KMF*. 채현경, "누구의 목소리인가: 서구식 음악교육과 여성역사의 변화," 『음악과 문화』 29 (2013), 140에서 재인용.

27) 백우용이 회장을 맡고 그로브 목사가 비평장을 맡았으며 최동준, 임배세, 김엘리스, 박태원, 신양무, 김정렬, 김은라 등이 함께 모여 만든 음악가 모임. 『동아일보』, 1920.06.28.

Grove)<sup>28)</sup> 목사도 한국인들이 평균율에 익숙하지 않아 5음음계의 곡은 잘 부르지만 7음음계의 곡은 어려워하므로 반음을 강요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sup>29)</sup> 문성모 역시 한국인들이 찬송가를 틀리게 부르는 원인을 분석하여<sup>30)</sup> ‘가사와 리듬의 관계’에서 못갓춘마디가 서양언어처럼 관사나 전치사가 없는 우리말로 표현하는 방식이 맞지 않아 전통음악은 모두 강박으로 시작함을 밝히고 있으며 ‘역양과 악센트의 부조화’는 강박에 단어의 첫 소리가 아닌 조사가 자주 사용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통음악에는 부점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부점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우며 표현을 하더라도 한국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

이 창가집을 일반여성들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위의 지적사항들이 종종 발견되어 노래 부르기 난해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첫째, 대부분의 노래는 7음음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임시표의 사용빈도도 높아 반음이 많이 등장한다. 둘째, 노래들의 음역이 6-11도로 노래를 부르기 어려운 음역대는 아니지만 <새 거울>, <정조>, <나서라>, <라란 부인가>, <짹딱크(1)> 등의 노래는 시작음을 높게 잡아 최고음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또한 <연광정경개>, <서모가> 등의 노래에서는 음과 음 사이의 도약이 옥타브 이상 벌어지고 있어 한 번에 정확한 음을 잡기가 어렵다. 셋째, 가사와 선율의 관계가 모호한 노래들이 있다. 가사의 내용은 슬프지만 선율은 장조를 사용하여 분위기가 맞지 않거나 마디 시작음인 강박에 가사의 조사를 부르게 되어있어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창가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서양식 악보 표기이기 때

28) 1910년 미감리회 선교사로 내한하였으며 1913년 장로목사안수를 받고 1920년 미국으로 돌아갔다.

29) Grove, “Adequate Song-Books,” *KMF*.

30) 문성모, “한국전통음악에서 본 찬송가 틀리게 부르기의 원인분석,” 『교회음악』 (1987, 봄), 22-23.

문에 박자나 조성, 음계 등의 기초 지식을 비롯하여 페르마타, 셋잇단음표, 못갓춘마디, 계류음(suspension)과 선행음(Anticipation), 부점 등의 사용은 서양음악을 배우지 않은 여성들에게 어색하고 불편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여성들이 이 창가집을 주·야학이나 강습소 등에서 배우더라도 즐겨 불렀을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 2) 창가집의 내용

이 창가집은 서광(曙光), 비애(悲哀), 경계(警戒), 권고(勸告), 희망(希望), 전진(前進), 의절(義節), 성공(成功) 총 8개의 주제로 나누어지며 각 주제마다 2-9곡의 노래들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는 노래 전곡을 통해 백우용이 그리고자 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확인하고, 텍스트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는 현모양처(賢母良妻)의 이미지로 5곡에서 나타난다. 가장 작은 국가인 가정 안에서의 여성으로, 남성의 좋은 아내인 양처(良妻)와 국가를 위해 자식(특히 남자아이)을 훌륭하게 키우는 현모(賢母)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는 유교 안에서의 이상적인 여성상을 가르치는 노래가 10곡 있다. 오랫동안 내려온 유교에 근거를 둔 전통사회에서 지향하는 여성에 대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구습을 무조건 버리지 말고 좋은 것은 계승하자는 주장을 엿볼 수 있다. 셋째는 계몽된 여성상을 노래하는데, 27곡이 이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곡을 차지하는 계몽된 여성은 근대국가에 어울리는 여성이 되기 위하여 남성에게 의지하지 말고 발전을 도모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7장 의절(義節)에서는 동서양 여성 위인들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었는데 한국여성 노래 3곡, 중국여성 노래 2곡, 서양여성 노래 3곡<sup>31)</sup>이다. 여기서 각 나라마다 여성상이 나뉘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 여성위인의 모습에서는 논개나 계월향 등의 의절을 노래

하여 여성의 정조를 강조하는 유교적 여성상을 그리고 있으며, 중국 여성위인을 통해서 아들을 어질게 가르치는 현모 역할을 주로 노래하여 가정에서의 여성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서양 여성위인으로는 라란부인<sup>32)</sup>과 잔 다르크의 행적을 노래로 만들었는데 이 둘의 이야기는 당시 『라란부인전』과 『애국부인전』으로 번역되어 인기를 끌기도 하였다. 애국심으로 나라를 위하여 진취적으로 활동한 계몽된 여성 영웅의 모습을 노래한다.

그렇다면 세 가지의 여성상을 어떻게 그렸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① 가정에서의 이상적인 근대 여성: 국가를 위한 현모(賢母), 남성의 양처(良妻)

백우용이 노래하는 첫 번째 여성상은 가정에서의 여성, 즉 현모양처이다. 지식인 남성들은 부국강병의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받은 국민(남성)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 국민(남성)을 기르는 계몽된 어머니(여성)와 국민(남성)을 내조하는 아내(여성)가 필요했다. 그러므로 ‘여성을 위한 교육’은 시작부터 ‘남성을 위한 교육’과는 목적이 달랐다. 여성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소양을 갖추는 것이었으며<sup>33)</sup> 남성에게 있어 여성은 언제나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존재하였다.

31) 노래는 3곡이나 잔 다르크에 대한 내용이 2곡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노래되는 인물은 2명이다.

32) 롤랑 부인(Madame Roland, 1754-1793)은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로 남편의 정치 업무에 협력하였다.

33) 이임화, 『계집은 어떻게 여성이 되었나』 (서해문집, 2004), 13.

## [악보 1]

## 의무

g调四分四拍

5 1 2 3 5 3 2\_ 6\_ 2 1 2 3 2 7 6\_ 0  
부 역 으 로 서 나 오 라 여 인 니 네 들 아

5 4 5 6 7 1 7\_ 2\_ 2 3 2 1 7 1 2\_ 0  
코 때 무 든 행 자 치 마 비 서 던 지 고

5 1 2 3 5 3 2\_ 6\_ 2 1 2 3 2 5 3\_ 0  
나 아 와 서 살 피 보 고 집 - 안 형 편 을

3 3 2 3 4 4 3 3 2 1 2 3 2 2 1 2 3 2 2 5 6 7 4 3 3 5 2 1\_ 0  
매 운 내 에 눈 물 흐 른 두 눈 을 씻 고 큰 집 이 나 작 은 집 에 되 어 가 는 형 편 을

1. 부역으로서 나오라 여인네들아 코때 묻은 행주치마 벗어 던지고 나아와서 살피보라 집안 형편을 매운 내에 눈물 흐른 두 눈을 씻고 큰집이나 작은 집에 되어가는 형편을
2. 사람다운 새 살림에 집안을 살려 내 남편을 정력 있는 일꾼 만들고 새 지식을 많이 얻어 육아에 힘써 동포위해 일 잘할- 국민 만들이 집에 있는 국민의- 할 일이-로다

이 노래는 제 6장 전진(前進)의 4번째 노래인 <의무>의 악보와 가사이다. 4/4박자, 사장조로 구성되고 전체적인 형식은 A-B-A'-C의 유절형식이다. 또한 한 음절에 한 음이 붙는 실라빅(syllabic) 형태이며, 특히 13마디부터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narrative)으로 전개된다. 노래가 17마디로 이루어진 이유도 가사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노래 전반에 걸쳐 반음이 자주 나타나며 노래의 끝부분에 부점 리듬을 사용

하고 페르마타를 기보하는 등 서양식 악보체계를 기준으로 작곡을 하였다. 가사는 남편의 내조와 자식의 교육에 힘쓰는 것이 여성의 의무임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여성이 가정 안에서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가사화하였다. 이것이 당시 남성들이 원하는 모범적인 주부의 표상이다. 당시의 여성은 국민으로서의 여성이 아닌 근대 국가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뚜렷하다.

## ② 유교사상 안에서의 여성

두 번째 여성상은 유교사상, 즉 전통사회에서의 여성이다. 우리에게 있어 유교사상은 전통사회부터 매우 중요한 정신으로 삼강오륜(三綱五倫)<sup>34)</sup>을 기본 덕목으로 한다. 아래의 노래 외에도 <열절>, <부부의 진애> 등 여러 노래에서 ‘삼강’ 혹은 ‘오륜’이라는 단어를 가사에 직접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덕목들은 군신(君臣), 부자(父子), 부부(夫婦) 등의 관계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상하의 준비차이를 만들어<sup>35)</sup> 우리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사회 안에서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팽배하였으며 나아가 남존여비 사상까지 만연하여 유교적 가부장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로 정착하게 되었다.

34) 삼강: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

오륜: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

35) 김미영, 『유교문화와 여성』 (살림, 2004), 16.

[악보 2]

## 상가승무노인곡

C調八分六拍

3 3 3 2 1 5 5 0 6 6 4 6 1 1 0  
오 른 을 밝 히 고 - 삼 강 을 세 움 은 -

2 1 7 1 2 6 6 0 6 6 6 7 1 5 5 0  
우 리 인 류 계 에 웃 들 이 - 로 다

3 3 2 1 5 5 5 6 6 1 2 3 3 0  
자 손 된 자 부 모 를 경 봉 할 게 요 -

3 5 2 3 2 1 6 5 5 2 2 1 1 0  
부 모 는 자 - 손 을 친 애 할 지 라

1. 오름을 밝히고 삼강을 세움은 우리 인류계의 으뜸이로다  
자손된 자 부모를 경봉할게요 부모는 자손을 친애할지라
2. 성종시 남산하 적은 초옥집 어머니와 아들자부 세 사람  
가세는 빈한하여 생계난이니 오름을 도와주는 화합뿐이라
3. 하루는 성종께서 순찰하실 때 우연히 이 집을 당도하시니  
상인은 노래하고 여승 춤추며 노인은 슬픔으로 통곡하노라
4. 제군은 이 뜻을 이미 아셨나 나의 한 말을 들어보시오  
인생의 귀한 것이 두발 되는 중 부녀는 두발이 생명 같도다
5. 이 날은 자기시모 회갑당하니 적수 공권의 빈 주먹이라  
생각을 하고보니 회갑이란 것 사람의 중생함과 같이 귀하다
6. 다.만 편시모 회갑당하여 귀중이 여기는 자기 머리를  
자기가 깎아서 저자에 팔아 그 시모 회갑 잔치 배설하였네
7. 이 부녀 조금도 애여함 없고 도리어 즐거움 잊지 못하여  
상인된 자기남편 축수가하고 효봉스런 자기는 춤을 추었네

8. 이 일을 생각하는 자기 시모는 가세의 빈곤함과 자부 효성을  
도리어 생각하니 슬픈 회포가 남모른 가운데 통곡되었네

이 노래는 제 4장 권고(勸告)의 5번째 곡인 <상가승무노인곡>의 악보와 가사이다. 다장조에 6/8박자의 복합박자(=겹박자)를 사용하며 A-B-A'-C 형식의 16마디로 이루어져있다. 악보 3마디의 ‘셈’은 가사 ‘세움’의 줄임말이고, 1마디와 9마디의 선율은 같지만 가사에 맞춰 붙임줄을 사용하는 점 등을 보아 노래를 먼저 만들고 후에 가사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지극히 유교적인 가사로 이루어진 이 노래는 하나의 이야기를 8절의 가사에 걸쳐 서술하는 형식으로 삼강오륜의 덕목 중 가정 내에서 가장 중요시 되던 효(孝)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앞서 말한 첫 번째 여성상처럼 이번에도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노래하지만 전자가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를 노래했다면 후자는 가부장적 가족제도 안에서의 질서를 노래한다. 그러므로 유교사상에서의 여성은 가족 구성원이 아닌 시부모를 정성껏 모시고 아들을 낳아 기르며 가족의 대(代)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이라 할 수 있겠다.

### ③ 근대 국가에 어울리는 계몽된 여성

백우용이 노래한 마지막 여성상은 근대 국가에 어울리는 계몽된 여성으로 근대에 가장 화두가 되었던 신여성으로 지칭할 수 있다. 백우용이 가장 많이 노래화한 여성상인 ‘신여성’의 출현은 여성을 여성자체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십세기인 문명시대의 여성은 남녀평등 아래 장래를 내다보고 구습의 폐단을 고쳐 자유를 얻으라는 등의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정조>, <권고가> 등에서 외형만 중요시하는 신여성의 모습을 꼬집기도 하였다.

[악보 3]

## 자립

C調四分二拍



5 5 5 3 2 1 2 3 5 5 6 5 1  
문 - 명 의 고 초 가 서 천 명 공 으 로

5 5 5 3 2 1 2 3 5 5 6 5 1  
반 - 토 조 선 녀 자 계 의 고 막 울 렸 네

5 3 1 3 2 1 2 3 5 3 1 2 3 5 6 6  
녀 - 자 의 번 - 위 와 우 리 자 - 유 를

5 3 4 2 3 1 2 3 5 5 6 5 1  
고 성 으 로 고 창 하 야 자 자 밥 시 다

1. 문명의 고추가 서천명공으로 반도조선 여자계의 고막 울렸네 여-자의 본의와 우리 자유를 고성으로 고창하여 찾아봅시다
2. 문화가 발전되는 이십세기는 문명적 경쟁이 극성시기가 문명자유 평등을 보전하기는 오직 우리의 자립성이라
3. 이십세기 문명의 우리 여자계 반만년의 압박받은 그 분뇌를 자유로운 금일시대 당하였으니 우리가 자립토록 성심합시다
4.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못하고 남자의 수중에 의뢰했으니 분-투를 발하는 금일시대에 우리가 자립토록 진력합세다

이 노래는 제 6장 전진(前進)의 5번째 곡인 <자립>의 악보와 가사이다. 노래는 2/4박자, 다장조, 16마디로 구성되며 스코틀랜드 민요 <밀밭에서>를 개작한 노래로 일본에서는<sup>36)</sup> <고향의 하늘>(1888), 중국에서

36) 일본에서는 현재까지 후쿠오카 등 여러 도시에서 신호등 음향 멜로디로 사용되는 친근한 곡이다.

는 <함께하는 즐거움>(1905)이란 노래로 창가집에 실렸으며 조선에서도 다양한 주제의 노래로 개작되었다. 『고등소학창가』(1906)에서는 <가을의 산>, 홍난파의 『통속창가집』(1916)에서는 <월야>로 개작되었으며, 최남선의 <경부철도가>(1908)와 독립군가인 <국치추념가>의 선율로도 차용되었다. 가사는 앞의 두 여성상과는 대조적으로, 여성에게 진취적이며 자주적인 모습을 요구한다. 특히 11-12마디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넣어 최고음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표현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 3절의 ‘반만년의 압박받은 그 분녀’라는 가사를 통해 지금까지 억압되어있던 여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4절의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못하고 남자의 수중에 의뢰’라는 가사에서는 여성들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준다. 이 창가집이 발행된 1920년대 초반은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시작되던 때로 백우용 역시 <노라>(1922)를 함께 만든 나혜석(羅蕙錫, 1896-1948)이나 한양남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임배세(林培世, 1900-?) 등의 여성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 준 역할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위에서 살펴본 노래들을 통해 창가집에서 노래하고자 하는 여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가지의 여성상은 전통사회와 근대국가에서 원하는 각각의 이상형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처럼 상반된 신규 여성상의 모습을 하나의 노래집에 함께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서 백우용의 양가성(ambivalence)<sup>37)</sup>에 대해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여성운동이 활발해지던 시대에 여성운동가들과 교류한 지식층 남성으로서 계몽여성에 대한 인지(認知)는 분명히 하지만 문화적으로 전통사회의

37) 서로 대립적인 감정 상태가 공존하는 심리적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 나아가 이 논문에서의 ‘양가성’은 호미 바바(Homi K. Bhabha, 1949-)의 ‘양가성’ 개념과도 연관이 되는 지점이다. 바바의 양가성 이론은 “서구의 상징계적 시선·담론의 권력이 타자의 저항에 부딪혀 분열되면서 실제계를 드러내게 됨을 논의”하기에 이런 의미에서 식민지 시기 백우용의 양가성을 논할 수 있다. 호미 바바 / 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소명출판, 2002), 16.

유교적 가치관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양가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4. 식민지 조선여성에게 보내는 노래

최초의 ‘여성을 위한’ 이 창가집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이 책의 구성으로 볼 때 학교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각종 관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 사용된 창가집은 일체와 관련된 의식창가를 포함시켜야 했고, 조선어가 일체 불가인 상황에서 일본어만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창가집은 일체와 관련된 창가를 포함하지 않으며, 일본어 역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책은 만일 학교에서 사용되었더라도 교사에 재량에 따라 부교재로 사용되거나 학교 밖 주·야학, 강습소나 청년단체의 강연회 등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노래집이 여성을 위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악보(제목 예외)와 가사 전체에 한글을 사용하고 가사 중 한자식 단어 옆에는 한자를 표기하여 뜻을 알게 한 점으로, 당시 한글을 여성과 어린이의 문자로 상정하던 시대의 흐름을 같이하여 여성잡지나 여성 교과서처럼 여성을 위한 노래집을 만들었음을 암시한다. 아래의 표를 보면 창가집의 수요층이 더욱 분명해진다. 백우용은 자신의 창가집마다<sup>38)</sup> 교열자들의 명단을 실고 있는데<sup>39)</sup> 교열자들은 주로 당시에 활발하게 활동하던 계몽/교육가들이다.

이 창가집에도 백우용은 표지 다음 장인 제일 앞부분에 전부 여성으로 구성된 명단을 넣음으로 독자에게 교열자를 확실히 밝히고 있는데,

38) 백우용의 『조선지리경개창가』에도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교열자 명단이 실려 있다.

39) 백우용의 창가집 외의 당시 다른 창가집에서는 교열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검증된 참가집임을 알리는 목적 외에도 남성으로서 여성들의 눈을 의식하고 참가집을 만들었다는 방증(傍證)이기도 하다. 당시에 교열자로 참가한 이들의 여성 교육 및 계몽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고려 할 때, 이들이 단지 교열자의 역할 만을 담당 한 것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표 2〕 『이십세기청년여자참가』 교열자방명(校閱者芳名)

소속	직책	이름
(조선)여자교육회	회장	김미리사(金美理士) =차미리사
	부회장	김선(金善)
	총무	방신영(方信榮)
밀양여자청년회 <sup>40)</sup>	회장	고원섭(高遠涉) <sup>41)</sup>
이화학당	전(前)교사	김숙자(金淑姿) <sup>42)</sup>
	교사	임배세(林培世)
	교사	김활란(金活蘭)
태화여자관 <sup>43)</sup>	교사	이숙정(李淑貞)
배화학당	교사	김정애(金貞愛)
	교사	최혜선(崔惠善)
중앙유치원 <sup>44)</sup>	교사	강득영(姜得英)
	교사	방성옥(方成玉)

40) 1920년경 만들어진 밀양지역 여성들의 청년단체이며 임원은 모두 밀양교회 교인들이다. 밀양여자야학교를 설립하고 강연회를 여는 등 여성운동에 일조하였다. 후에 밀양근우회로 업무를 이관한다.

41) 서울과 밀양을 오가며 여성운동가로 활약함. 동아일보 설립 주주이자 밀양분국장, 밀양야학교 교장, 밀양유치원 창립위원, 밀양물산장려운동 위원 등을 역임, 부산 초량교회 교인, 이후 조선여성동우회 발기인으로 참가.

42) 이 참가집의 서(序)를 쓴 장도빈의 아내이다.

43) 미국 남감리회 여성종합사회선교센터로 각 지역마다 ‘여자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여성교육, 친목, 계몽, 보건의사업 등 다양한 사회선교사업을 추진하였다. 태화

이 창가집은 12명의 여성운동가가 교열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당시 여성운동에 앞장선 인물들로 소속은 여자학교나 유치원, 여성단체이다. 이 창가집이 어디서 사용되었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 이들이 소속되어있는 여섯 곳에서 이 창가집을 사용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더구나 경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방(밀양)까지도 이 책이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 창가집이 발간되기 전부터 차미리사는 조선여자교육회 안에 부인야학강습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야학의 수업과목에 음악도 있었다. 그리고 창가집이 발간된 1921년 한 해에만 전국에 21개의 여성 야학이 창립되었다.<sup>45)</sup> 문혜윤 역시 박문서관에서 출판된 노병희의 『여자소학수신서』(1909)에 ‘이화학당장 부라이(富羅伊), 진명여학교감 여메예황(余袂禮黃), 양원여학교장 윤고라(尹高羅)가 교열’을 보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아 적어도 세 여학교의 교재로 사용되었을 거라 추측한다.<sup>46)</sup>

더욱이 여성 교열자간의 행적은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이들이 위의 소속 외에도 활동범위가 더욱 넓었음을 의미한다. 고원섭은 밀양과 부산에서 차미리사, 김활란의 강연회를 열어주기도 했으며 김활란, 방신영 등은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YWCA)에서, 차미리사, 김활란, 김선 등은 민족운동모인인 근우회에서 함께 활동하였다. 이숙정은 1920년에 배화학당 소속이었으며 방성옥도 나중에 태화관 내 태화유치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처럼 이들은 잦은 교류를 통해 가는 곳마다 여성강습회

---

여자관의 전신인 협성여자성경학원에서는 1918년에도 이미 음악수업을 하고 있었고 창가집이 만들어지는 1921년 교육과정을 보면 종교부에 창가반과 음악연구반을 확인할 수 있다. 『동아일보』, 1921.03.25.

44) 1916년 한국인이 설립한 최초의 유치원(현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이다.

45) 한상권, “차미리사의 근화여학교 설립과 여학교연합바자회 참가,” 『인문과학연구』 11 (2007), 244.

46) 문혜윤, “근대계몽기 여성 교과서의 열녀전, 그리고 애국부인들,” 『반교어문학회』 35 (2013), 101.

나 토론회, 음악회, 야학 사업을 계속 펼쳤는데 이때 음악은 여성의 계몽/교육에 빠질 수 없는 도구였으며 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백우용의 창가집이 사용되었을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 5. 결론: 누구를 위한 노래인가

우리나라 최초로 등장하는 여성창가집인 백우용의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그 제목이 분명하게 제시하듯 개화기 여성을 위한 노래책이다. 그러나 이 창가집은 많은 여성 교열자들이 참여한 사실에 반해, 남성의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노래들의 음악적 수준이 높고, 가사의 내용이 유교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음을 미루어 ‘새 시대 새 여성에 걸 맞는 노래책’으로 정규 교육에서 사용됐는지 등의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하였다. 이 연구가 그런 의문들에 대해 어느 정도는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겠다.

이 노래책은 개화기의 지식인 남성들이 여성들의 계몽을 위해 신문, 잡지, 교과서 등에서 여성의 교육을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 작곡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계몽/교육을 주장하는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창가집의 노래로 표현된 이상적인 여성상을 보면 전통과 근대가 함께 병행하고 있어 작곡가의 양가적인 심리상태를 볼 수 있다. 우선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현모양처로 대변되는 국민(남성)을 만드는 어머니와 국민(남성)을 내조하는 아내에 초점을 두어 국민으로서의 여성이 아닌 근대 국가의 조력자로서 드러낸다. 또한 유교사상에서의 여성으로 삼강오륜(특히 효(孝))을 중심으로 관혼상제와 같은 의례 안에서 가족의 대를 잇는 역할이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근대 국가에 어울리는 계몽된 여성으로 남녀평등, 여성자립 등을 실천하여 국민인 여성도 사회로 나와야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처럼 백우용은 구

시대의 전통을 따르는 모습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나가는 여성의 모습을 만들어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근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계몽/교육의 수단으로 음악이라는 도구를 만나게 되는 시점을 파악하고, 서양 조성음악을 기초로 하는 창가를 통해 근대 여성들에게 친구 사이에 적합한 가치관을 확립시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성 지식인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고정화된 여성성의 발단 모습까지 확인하였다. 더불어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교열자 명단을 통해 남성 지식인과 공생하는 여성운동가들의 노력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선교사들이 지적했듯이 일반여성들이 반음을 어려워하고 가사와 리듬의 관계를 불편해 하는 등 서양음악을 자연스럽게 부르기는 쉽지 않았다. 이 창가집 역시 군악대에서 서양식 음악교육을 받은 백우용에 의해 서양 조성음악에 기초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악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불편했을 것이며 당시 여성들이 이 노래들을 야학이나 강습소에서 배웠더라도 즐겨 부르지 못했을 것이다.

이 창가집이 반영하듯 지식층 남성들의 노력이 수용자인 실제 여성들의 삶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남성들의 다양한 여성 계몽운동은 그들 자신이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민지 상황에서 서구 강국의 여성들의 변화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음을 인지하고 자국의 부국강병을 위해 여성의 변화를 촉구하는 일종의 모방시도이다. 남성에 의해 만들어진 근대 여성성은 여성들이 원하는 여성상이 아닌, 남성들이 원하는 여성상의 발현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남성이 아무리 여성의 계몽을 주장하여도 여성의 삶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기보다는 여성운동에 대한 의의/상징으로 머물렀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남성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여성노래의 한계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 일차자료

백우용.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 광문서시 (1921)

장지연. 『녀즈독본』. 광학서포 (1908)

Grove, P. L. “Adequate Song-Books.” *Korea Mission Field* (Seoul: Fed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1915), 110-113.

Harmon, G. M. “Music in the School.” *Korea Mission Field* (Seoul: Fed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1915), 103-105.

『독립신문』, 1895.09.05.

『황성신문』, 1908.02.06.

『동아일보』, 1920.06.28, 1921.03.25.

### \* 논저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김미영. 『유교문화와 여성』. 살림, 2004.

김미지. 『누가 하이카라 여성을 데리고 사누』. 살림, 2005.

문성모. “한국전통음악에서 본 찬송가 틀리게 부르기의 원인분석.” 『교회음악』 (1987, 봄), 18-24.

문혜윤. “근대계몽기 여성 교과서의 열녀전, 그리고 애국부인들 - 장지연의 『여자독본』을 중심으로.” 『반교어문학회』 35 (2013), 97-128.

이임화. 『계집은 어떻게 여성이 되었나』. 서해문집, 2004.

이효재. 『한국의 여성운동 - 어제와 오늘』. 정우사, 1989.

조윤영. “음악, 근대 그리고 계몽: 백우용(白禹鏞, 1883-1930)은 누구인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채현경. “누구의 목소리인가: 서구식 음악교육과 여성의식의 변화.” 『음악과 문화』 29 (2013), 119-158.
- 하희정. “<가덩잡지>에 나타난 한말 기독교인들의 여성이해.” 『한국여성신학』 22 (1995), 63-73.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내한선교사총람 (1884-198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 한상권. “차미리사의 근화여학교 설립과 여학교연합바자회 참가.” 『인문과학연구』 11 (2007), 241-285.
- \_\_\_\_\_. 『차미리사 평전』. 푸른역사, 2008.
- 호미바바 / 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Abstract

**Women Songs Made by a Male Perspective:  
Focusing on *Twentieth Century Youth Women Songs*  
by Baek Woo-yong**

Cho Yoon Young

This paper is a study on Baek Woo-yong's *Twentieth Century Youth Women Songs (Changga)* (二十世紀青年女子唱歌), a collection of songs published for women for the first time in colonial Chosun. The paper first analyzes the lyrics and music of a total of 42 songs within a sociocultural context, in order to examine how the ideal identity of modern women was created. Then it compares the ideal and traditional images of women during that time period,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nge in Chosun people's perception on the desirable image of woman in the course of modernization.

The first song collection, *Twentieth Century Youth Women Songs* can be regarded as the same attempt as the published writings at that time that argued for women's educa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Therefore, I first examines articles and writing such as *Family Magazine* (1906) and *Independent Newspaper* (1896-1899), which were published by the effort of intellectual males; then I will analyzes the song repertoires of *Twentieth Century Youth Women Songs* in terms of music. Then I will makes a close investigation of the texts which can largely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e three categories include 'Good wife and wise mother at home,' 'Confucian women in a traditional society,' and 'Enlightened women who fit modernization,' highlighting the images of both traditional and modern women and illustrating the ambivalent attitude toward women in society at that time.

The fact that *Twentieth Century Youth Women Songs* is a collection of songs intended for women, yet it was composed by the male, clearly reflect the societal demand of the time. Furthermore, upon considering the following reasons, one wonders how these songs were actually learned by the general women and how these songs really reflect the emotions of the oppressed women of the time: twelve women activists participated in it as copy editors; an assumption that it was mostly used in weekend/night schools and institutions rather than regular schools; and the fact that many songs in Western music style were never easy for general women, the consumers, to sing at their musical level.

In the colonial situation, intellectual males could not perform any political reformation, therefore they controlled native women's activities thinking that the changes of western women's social status resulted in Western nations' political power and wealth. Intellectual Korean males' various enlightenment movements for women can be seen as an mimicry of the west to urges women to change for their country's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However, as this collection of songs reflects, it is difficult to claim that the attempt made by male intellectual at that time actually had a real influence on the real life of women in colonial Chosun.

Keywords: colonial Chosun, Baek Woo-yong, women songs, *changga*, modern women

투고일	심사일	계재 확정일
2014년 4월 27일	2014년 5월 4일~23일	2014년 6월 1일